

작품성·흥행 올킬...한국영화 100년의 대사건

(칸 황금종려상) (1000만 관객)

- 1 빈부격차 접근 방식 갑론을박
- 2 영화 곳곳을 채운 은유와 상징
- 3 재미 놓치지 않는 장르 비틀기
- 4 해외서 역대 한국영화 흥행 1위
- 5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기대



영화 '기생충'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힘을 확인시켰다. 올해 5월 황금종려상을 안겨준 칸 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한 연출자 봉준호 감독(왼쪽에서 두 번째)과 주연 배우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영화 '기생충'이 또 하나의 기록을 썼다. 5월30일 개봉해 두 달 동안 화제를 이어온 끝에 통산 26번째로 '1000만 클럽'에 가입했다. '기생충'은 단순히 1000만 흥행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의미를 남긴 작품으로 남게 됐다. 한국영화 100년을 맞은 올해, 그 역사를 상징하는 '사건'이자, 한국영화의 미래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은유·상징 갑론을박...중장년층까지 흡수

올해 5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봉준호의 영화"(비라이어티)라는 등 극찬과 뜨거운 관심 속에 개봉 첫 날 56만 관객(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모으며 가파른 흥행 곡선을 그려왔다. 관객의 다양한 반응도 쏟아졌다. 작품

의 완성도와 별개로 현실의 빈부격차에 접근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반응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화를 빼곡히 채운 은유와 상징을 해석하는 의견도 활발히 오갔다.

이런 화제는 영화 주요 관객층인 20~30대를 넘어 중장년층의 관심까지 붙잡았다. 실제로 CGV 리서치센터 분석 결과 5월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기생충'을 본 50대 이상 관객 비중(15.0%)은 같은 기간 평균치(10.9%)와 비교해 눈에 띄게 높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신자유주의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오락적 재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장르를 비트는 탁월한 가치도 지녔다"고 짚었다. 이어 "상업영화에도 비평적인 접근이 가능한 한국영화만의 특징이 '기생충'으로 절정을 이뤘다"며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지만 1000만 명이 봤다는 사실은 한국영화의 힘이자 관객의 힘이다"고 밝혔다.

●한국영화 첫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기대

칸 황금종려상 프리미엄급 빈부격차라는 전 세계 보편적인 소재를 다룬 '기생충'의 힘은 해외에서도 유효하다. 프랑스

에서는 6월5일 개봉해 한 달 만인 이달 3일 누적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한국영화 최고 성적이자, 아시아 영화로도 이례적인 흥행 열기다. 러시아와 베트남에서도 한국영화 역대 1위 흥행을 기록했다.

영화계에서는 '기생충'의 성과가 내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영화 최초로 외국어영화상 최종 후보인 5편 안에 들 것이라 전망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아카데미를 겨냥하는 영화들이 선호하는 시기인 10월 북미에서 개봉한다는 점도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혜리 기자 gaff1024@donga.com

현빈 & 황정민, 스크린선 처음이야!

내년에 촬영하는 '교섭' 주연으로 중동서 납치된 한국인 구출 스토리



현빈 황정민

배우 현빈이 황정민과 손잡는다. 내년 제작되는 한국영화 기대작 가운데 한 편인 '교섭'의 주연을 맡아 스크린 첫 합작을 준비하고 있다.

현빈은 최근 '교섭'(제작 영화사 수박)의 출연 제안을 받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세부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찌감치 황정민이 출연을 확정된 만큼 현빈도 관련 논의를 곧 마무리하고 내년 초 시작하는 촬영에 나선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주연한 '협상'과 '창끝' 이후 다양한 영화 주연 제안을 받아온 현빈은 '교섭' 시나리오에 상당한 매력を感じ고 있다"고 밝혔다. '교섭'은 중동지역에서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다. 현빈은 목숨을 걸고 인질 구출에 나선 국정원 요원이다. 황정민은 그와 작전을 함께하면서 중동으로 날아가 극한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외교관을 연기한다.

인질 구출극이 주요 소재이지만 '교섭'은 액션보다 극적인 위기에 처한 인물들이 겪는

드라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 영화가 그동안 선했던 다뤄지 못한 중동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란 점에서도 시선을 붙잡는다. 제작진은 오랜 기획 끝에 주요 촬영지를 요르단으로 확정,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 '교섭'은 황정민과 임순례 감독이 2001년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 18년 만에 재회하는 작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톱스타 현빈의 합류로 더욱 화려한 진용을 갖추게 됐다. 현빈은 현재 11월 방송 예정인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에 한창이다. 이후 '교섭'으로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이혜리 기자

78세 트로트 가수 유성호, 노래하는 즐거운 인생

"황혼 이혼 안타까워 가사 쓰게 됐어요"

전국노래자랑 계기...가수 5년차 최고령 작곡·작사·3집 가수 기록 최근엔 '이별은 무슨 이별' 발표 "내 노래 듣고 이혼하지 않았으면"



스스로를 '실버 트로트 가수'라 부르는 유성호는 "노래하면 삶이 즐거워진다"며 꿈을 향한 열정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유성호

노래는 평생의 꿈이다. 그리고 인생이다. 초등학교 5, 6학년 무렵부터 노래하기 시작했다. 곧잘 부르는 노래에 동네 어른들은 "커서 가수가 되겠다"며 한 마디씩 거들었다. 스무 살이 되던 1961년 KBS '농어촌문화공개방송'(연기군 편)에 출연해 '황성옛터'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1968년 월남전에 참전해 수색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탁월한 재능으로 부대 분위기를 주도하며 8개월 연장 근무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꿈은 흐릿해져 갔다. 꿈은 녹록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도 버틸 수는 없었다. 2014년 73세의 나이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것도 그래서였다. 그해 연말결선까지 진출했다. 한 해 출연한 270명의 우승자가 경연하는 결선에서 52명의 서울 출신 중 당당히 1위로 무대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정식 가수'가 된 뒤 최근 네 번째 앨범을 발표한 "5년차 가수" 유성호(78). 그는 "한평생 노래만 불렀다"고 말한다.

유성호는 2015년 '인생은 백세시대'를 선보이며 가요계에 발을 내디뎠다. "나 같은 사람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트가 됐으면"하는 바람에 오늘도 그는 마이크를 잡는다. 작사가 및 작곡가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의 노래 페스티벌'(사단법인 도전한국인협회 주최)에 참가해 '최연장 작곡, 작사, 가수 음반 3집'이라는 기록으로 '대한민국 최고기록 인증'을 받기도 했다.

경제신문 기자 출신이기도 한 그는 노랫말 쓰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다. 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를 정도 머릿속에 읊조리다 글로 써내려간다. 작곡은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지만 가사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휴대전화에 녹음하는 게 전부다. 약기를 배워보고 싶

은 마음에 기타 학원을 다녔고, 그 인연으로 알게 된 학원장에게 멜로디를 들려줘 악보를 쓴다. 이는 악보를 읽지 못하는 여느 가수들도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건데 못 할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흥이 많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를 부른 다잖아요. 노래는 인생이고, 인생이 노래죠."

그의 말처럼 꿈을 키우며 지나온 세월은 그대로 노래가 됐다. 데뷔곡인 '인생은 백세시대'를 비롯해 최근 선보인 '이별은 무슨 이별'도 마찬가지다.

"65세 이상의 실버세대가 약 745만 명 이래요. 그들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게 안타까워 가사를 쓰게 됐어요. 제 노래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제가 노래하는 이유고, 보람이고, 또 꿈이죠."

유성호는 자신의 노래 인생에 함께 하는 이들이 있어 또 행복하다. '전국노래자랑'의 MC 송해도 그에게 반해 지금까지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또 매년 '전국노래자랑'의 신재동 악단장이 주관하는 송년 음악회에 출연하고 있기도 하다.

"노래? 별 거 있나요? 그저 '처음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짝꿍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이별은 무슨 이별)라는 가사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제 팔자가 그런 걸요. 노래하세요. 그러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이정영 기자 anny@donga.com

강지환 사건 피해 여성들 "악플 법적 대응"

누리꾼 30여 명 명예훼손 검찰 고발 합의 중용 피해자 소속사 수사 압박

연기자 강지환(조태규·42)이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2일 구속됐지만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20일 이들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3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21일 "피해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수사 과정에서 악성 댓글 피해가 반복될 것을 염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악성 댓글을 반복해 게재하거나 1회 댓글을 달았더라도 심한 수치심을 주는 등 명예훼손한 누리꾼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소속 업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 업체 팀장은 사건 직후 피해자들에게 "오빠(강지환)는 이미 잃을 거 다 잃었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등 문자를 보내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사실상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가해자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곧 경찰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강지환에 대한 악플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간이검사서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의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곧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4

마동석, '이터널스'서 즐리와 호흡



마동석과 즐리(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배우 마동석이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영화 '이터널스'에서 안젤리나 즐리와 호흡을 맞춘다. 마블스튜디오는 21일 '이터널스'의 캐스팅 라인업을 발표했다. 마동석은 안젤리나 즐리를 비롯해 쉐라 헤이엑, 리처드 매든 등과 함께한다. 재미교포 출신의 언어 소통 능력, 신체적 조건 등이 캐스팅 배경이 됐다. '이터널스'의 연출은 클로이 자오 감독이 맡는다. 마동석은 8월 미국에서 촬영을 시작한다. 마동석은 2016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주연작 '부산행'을 선보이며 해외 영화계의 관심을 얻었다.

라이관린, 전속계약 해지 요구



라이관린

그림 워너원 출신 대만인 멤버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0일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올해 1월 팀 활동을 마무리하고 팬클럽 우석과 유닛을 결성해 활동해왔다. 앞서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왔다.

라이온 킹, 개봉 5일만에 200만 돌파



라이온 킹

영화 '라이온 킹'이 개봉 5일째인 21일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동원한 디즈니 라이브 액션 시리즈는 '라이온 킹'이 처음"이라고 이날 밝혔다. 디즈니 라이브 액션은 클래식 애니메이션을 실사 버전으로 옮기는 시리즈다. 2017년 개봉한 '미녀와 야수'는 8일 만에 200만 관객을 모았고, 최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알라딘'은 11일 만에 200만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참시' 사칭 사기 주의하세요"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이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작진은 20일 방송 마지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작진을 사칭해 협찬을 가정한 금품 요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란다"면서 "제작진은 절대 촬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을 사칭해 출연자의 단골집이라 홍보해준다는 식당주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